

## 연오(延烏)·세오(細烏) 설화(說話) 고(攷)

The Tale of Yon-o and Se-o Reviewed

---

저자  
(Authors) 소재영

출처  
(Source) [국어국문학 36](#), 1967.5, 17-33 (17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36](#), 1967.5, 17-33 (17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어국문학회](#)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74057>

APA Style 소재영 (1967). 연오(延烏)·세오(細烏) 설화(說話) 고(攷). 국어국문학, 36, 17-3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08 11:32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延烏 細烏 說話 攷

蘇 在 英

I. 序 文	IV. 地理的 考察
II. 陽中烏와 日蝕	V. 結 語
III. 歷史的 比定	

## I. 序 文

三國遺事 卷第一 延烏郎 細烏女條에 傳하는 說話는 원대 殊異傳의 所傳인 바 高麗 때 三國遺事에 採錄된 것으로 종래 여러 學者들이 여러 角度로 研究의 對象으로 삼아 왔다. 더우기 韓日關係를 보여주는 우리 側의 古文獻은 이 說話를 除外하고는 거의 없는 實情인 데다 日本側엔 古事記나 日本書紀 등 속에 이와 倣似한 많은 說話가 採錄되어 있어 一部 그들 學者 사이에선 韓日關係를 그들의 獨善의인 史觀을 덧붙여 牽強附會식으로 解釋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가끔 우리 文學史 속에 引用되는 說話 自體도 解釋이 區區하여 마치 日月精의 日本 逃避 내지 新羅人の 日本歸化 등의 印象조차 없지 않다.

그러면 이 延烏郎 細烏女 說話는 어떠한 角度에서 解釋되어야 할 것인가. 本論은 이 說話를 대충 다음의 세 가지 面에서 論述하려고 한다. 첫째는 이 說話의 本質을 말해 주는 日月神話의 陽中烏說에나 日蝕現象의 原始的 思考法을 考察하려는 것이요 둘째는 우리 나라에서 日本으로 건너갔다는 事實을 通하여 說話自體의 歷史的인 比定을 하여 보려는 것이다. 앞서 든 日月神話가 大陸에서 半島로 半島에서 島國으로 흘러간 文化의 一般的인 傳播路를 따라, 古代說話의 傳承地였던 우리 나라의 東南海岸과 日本의 이즈모 (出雲)等地에서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形成되어졌으리라고 생각되는 延烏細烏의 痕跡을 考證하여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 說話를 新羅地方에서 日本의 古代出雲地方에 移住 拓殖한 한 說話型으로 본다면 어떠한 經路를 밟았을가는 꽤 興味있는 問題가 될 것인데 지금까지 論議되어온 地理學的 地名的인 考證을 덧붙여 紹介하며 蛇足を 삼으려고 한다. 덧붙여 細絹마나와 日月祭에 관련된 古代人들의 祭天思想도 꽤 興味있는 課題로 살피질 것으로 생각된다.

## II. 陽中烏와 日蝕

먼저 宇宙 創造의 神話 가운데서 日月創造의 몇 가지를 살펴보자. 創世紀에는 여호아게서 宇宙萬物을 만들던 第四日의 創造가 日月星辰이란 說이 그 하나요, 太初의 混沌 속에서 漸次 分離發生하였다는 希臘系의 天地開闢說이 그 또하나의 類型이라 볼 수가 있다. 또 中國의 神話에서 盤固氏의 두 눈알이 해와 달이 되었다는 說도 꽤 興味있는 일이다. 우리 나라의 日月傳說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전하고 있다.

「옛날 어떤 어머니가 등너머 딸네집에 갔다가 떡을 얻어가지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 왔다. 途中 山腹에서 범을 만나 떡을 다 빼앗기고고 한다. 그러곤 또 옷을 要求하므로 옷까지 모두 빼앗기고는 끝내는 몸통이까지 범에게 잡아먹히고 만다. 그뒤 범은 어머니의 옷을 갈아 입고 세 아이가 기다리는 등너머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라고 한다. 아이들은 문틈으로 내민손이 하도 거칠어 어머니가 아니라고 했으나 털토수를 꺾다는 범의 꾀에 넘어가 문을 열어 주었다. 범은 어둠 속에서 떡을 베어 온다고 하고는 부엌으로 나갔다. 뽕도둑 뽕도둑 씹는 소리에 疑心이 난 두 아이는 문틈으로 아기를 잡아먹는 범을 確認하자 大驚하여 뒷문으로 달아나 곧 밭에서 있는 古木에 올라갔다. 두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안 범이 그들을 찾아 헤메다가 우물 속에서 물에 비친 두 아이의 그림자를 보고는 나무 위에 오르는 새주를 물었다. 갖가지로 속이다가 끝내는 도끼로 나무를 찍어 발버팀을 하면서 올라오는 범을 보고 다급해진 두 아이는 하늘에 빌어 내려준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누이는 해가 되고 형은 달이 되었으며, 썩은 줄을 타고 오르던 범은 줄이 끊어지자 수수대기에 肛門이 찢려 赤斑點을 남겼다<sup>1)</sup>」

이 說話는 東蒙古地方에도 傳하고 있는데, 다만 딸이 넷으로 되어 있고 범은 食人鬼의 遁甲으로, 나무에 올라간 세 아이가 가죽줄에 魔

(1) 孫晉泰「朝鮮의 日月傳說」(朝鮮民族說話의 研究) pp.155~159의 要約

婆의 목을 걸어 죽인 것으로만 變形이 되어 있으며, 또 네 처녀는 참빗  
얼기빗·솔적은솔로, 어미를 잡아 먹는 것은 吸血婆로 등장하고 있으  
며 鷄卵과 白臼와 기위와 바위와 돼지머리가 鬼婆를 복수하는 이야기  
로도 變形되어<sup>(2)</sup>, 이것을 孫晉泰氏는 高麗 때 元에 歸化한 女性들의  
입을 통하여 蒙古에 輸出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日本의 九州地方  
의 傳説 가운데도.

「어머니가 詣寺한 뒤 山姥가 어미로 둔갑하여 어미와 아이를 잡아먹고, 두  
아이가 金轡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山姥는 蕎麥밭에 떨어져 죽었다.」<sup>(3)</sup>  
고 하는 內容이 있어 우리 나라의 日月傳説과 흡사하여 大陸에서 半島  
로 半島에서 島國으로 건너간 文化의 傳播路를 따라 日本地方으로 移  
動해간 說話의 痕跡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日本의 古典 古事記나 日本  
書紀 등에서 女神인 天照大神(日神)과 男神인 素戔鳴尊·月讀尊을 聯  
想하게 하여 注目된다.

이와같은 日月傳説 가운데서 太陽에 關한 說話를 보면, 太陽 속에는  
까마귀(烏)나 닭(鷄)이 산다고 한다. 이는 火鳥 또는 金鷄라고도 일컫  
어지는 것으로 太陽의 陽氣가 凝集하여 된 것이며 鷺이 三本이라고 한  
다. 拾遺記에는 太陽의 精은 火鳥도 金鷄도 아닌 鬱華라고 한다. 그는  
처음 人間界에 살던 한 仙人으로 뒤에 天空에 올라 太陽 중에 머물렀다  
는 것이다. 山海經의 羲和國의 羲和神話며 漢武帝와 東方朔의 對話에  
서도 太陽 속에 사는 三足鳥가 자주 地上에 내려와 太陽草란 靈草를  
먹고 生氣를 얻는데, 그 풀은 너무 精氣가 強하여 過食하면 鳥獸가  
悶絶하므로 羲和가 그것을 걱정하여 烏의 눈을 가린다고 하였다.<sup>(4)</sup>

陽鳥란 太陽의 別稱으로 張協의 七命에 「陽鳥爲之頰羽 夸父謂之投策」  
이라 하고, 햇속엔 까마귀 달속엔 두꺼비가 있다는 烏鱗의 日月說話  
도 韓愈의 苦寒詩 「日月雖云尊 不能活烏鱗」이나 陸龜蒙의 奉酬襲美苦雨  
四聲詩에 「烏鱗俱沈光 晝夜恨暗度」란 것이 보이며, 햇속에는 까마귀 달  
속에는 토끼가 산다는 烏兔說에도 張衡靈憲序에 「日者 太陽之精 積而  
成鳥象 烏陽之類 其數奇 月者 陰精之宗 積而成獸象 兔陰之類 其數耦」라  
하고, 가장 오랜 것으로 淮南子 卷七 精神訓에 「日中有踰烏」註에 「踰

(2) 鳥居君子夫人「土俗學上より見たる 蒙古」pp.1087~1092 參考

(3) 高木敏雄「蕎麥」(日本傳説集) pp.267~269 參考

(4) 松村武雄「神話傳説の支那」중 太陽說話 p.11 및 松村武雄「神話と傳説」(支那 朝鮮 臺灣)중 太陽神話 pp5~8 參考

猶隄也 謂三足烏隄 讀隄魏之隄」이라 하였으며 太平御覽卷三日上所引淮南子에 「日中有隄鳥」라고 하였다. 또 文選卷三五 七命 「陽鳥爲之頡頏」의 李善注에 「春秋元命苞陽成於三 故日中有三足鳥 鳥者陽精」 張銑注에 「陽鳥日中鳥也」는 이미 詳論되었으며 淮南子 卷八 本經訓에 「逮至堯之時 十日並出 焦禾稼殺草木 而民無所食 狻猊 獠齒 九嬰 大風 脩蛇 皆爲民害 堯乃使羿誅獠齒於疇華之野 殺九嬰於凶水之上 繳大風於青丘之澤 上射十日而下殺狻猊斷 脩蛇於洞庭 擒封豨於桑林 萬民皆喜 敬堯以爲天子」란 怪說과 太平御覽同上 引淮南子の 「堯時十日並出 草本焦枯 堯命羿仰射十日 其九鳥皆死 墮羽鬣」이라 한 기록 등은 모두 這問의 陽中鳥說話를 說明해 주는 根據가 된다. 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高句麗壁畫에 天穹의 構圖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 이를 證明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延鳥細鳥說話의 「是時新羅日月無光……仍賜其綃 使人來奏 依其言而祭之 然後日月如舊」는 前述한 陽中鳥의 渡日로 일어난 變怪를 말함이다. 이 變怪란 아마 생각컨대 日蝕現象일 것으로, 이 記錄의 年代인 阿達羅王까지의 三國史記의 記錄만으로도 대충 다음과 같은 日蝕의 事實을 볼 수가 있다.

四年夏四月辛丑朔 日有食之(始祖赫居世居西千條) 二十四年夏六月壬申晦 日有食之(始祖赫居世居西千條) 三十年夏四月己亥晦 日有食之(始祖赫居世居西千條) 三十二年秋八月乙卯晦 日有食之(始祖赫居世居西千條) 四十三年春二月乙酉晦 日有食之(始祖赫居世居西千條) 五十六年春正月辛丑朔 日有食之(始祖赫居世居西千條) 五十九年秋九月戊申晦 日有食之(始祖赫居世居西千條) 冬十月丙辰朔 日有食之(二南解次次雄) 十二年九月庚申晦 日有食之(六祇摩尼師今) 十六年秋七月甲戌朔 日有食之(六祇摩尼師今) 八年秋九月辛亥晦 日有食之(七逸聖尼師今) 十三年春正月辛亥朔 日有食之(八阿達羅尼師今)

그밖에도 이에 類似한 記錄이 많은 文獻 속에 보이나 특히 後漢書 桓帝本紀에 보이는 「永壽三年 閏四月庚辰晦 日有食之」의 永壽三年은 西紀一五七年 즉 新羅 第八代 阿達羅王 即位四年이 되어 三國遺事의 기록에 符合하는 事實로 比定이 되며 洛陽의 日蝕이 新羅 迎日灣 附近에서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問題될 수가 있다<sup>5)</sup>. 이러한 日蝕現象은 古事記의 素戔嗚命의 暴戾條에 보이는 太陽의 女神 天照大神의 天岩戶隱避說에서도 볼 수 있다.

「故於是 天照大神見畏 閉天石屋戶而刺許母理坐也 爾高天原皆暗 葦原中國

(5) 中田薰「延鳥細鳥考」(古代日韓交涉史斷片考) 參考

悉闇 因此而常夜往 於是萬神之聲者 狹蠅那須皆滿 萬妖悉發 是以八百萬神 於天安之河原 神集集而……於是天照大御神以爲怪 細開天石屋戶而 內告者 因吾隱坐而 以爲天原自闇亦葦原中國皆暗矣 何由以天宇受賣者 爲樂亦八百萬神諸矣 爾天宇受賣 自言益汝命而貴神 坐故歡喜矣樂 如此言之間 天兒屋命布刀玉命 指出其鏡 示奉天照大御神慮思奇而 稍自戶出而 臨坐之時 其所隱立之天手力男神 取其御手引出 即布刀玉命 以尻久米繩 控度其御後方 自言從此以內不得還入 故天照大御神出坐之時 高天原及葦原中國 自得照明於是八百萬神共識而 云云」에서 天照大神이 御弟素戔嗚尊(須佐之男命)의 騷亂을 싫어서 天岩戶에 숨자 갑자기 日光이 없어지며 暗黑天地가 되었으므로 諸神들이 크게 迷惑하여 天岩戶 앞에 모여 歌舞와 音樂을 하였더니 天照大神이 神奇하게 여겨 문을 조그만치 열고 내다보려 할 때 그중 힘센 神이 문을 열어 짓히고 大神을 꺼내어 日光이 다시 빛을 回復하였다는 것이다.

日光을 回復하였다고 하는 細絹의 祭祀도

「朕之妃有所織細絹 以此祭天可矣 仍賜其絹 使人來奏 依其言而祭之 然後日月如舊」

라고 하였는데, 六堂은 이를 마나(Mana)란 말로 表現하였다. 이 迎日 細絹에 대하여 「蔽其於御庫爲至寶 名其庫爲貴妃庫」라 한 것을 보면 다만 傳說 만이 아니고 實際 新羅에 貴妃庫가 있어 天神女의 簾 聖布가 모셔져 있었으리라고 짐작된다. 日本學者 三品彰英氏도 蕃族의 慣習을 調査 報告한 引用文 가운데서

「天神을 맞은 機織의 이야기는 古朝鮮에만 限한 것이 아니고 臺灣의 土民들 사이에도 傳해지고 있는데 예컨대 류마族의 頭目이 祭儀에 使用하는 聖布는 옛 아리아드 娘子가 다고방(集會屋) 위에 앉아서 機織하고 있었다는 傳說로 說明이 되어 있어 다만 이 娘子는 播種을 指導하는 豫言者의 妻였다고 일컬어지고 있다<sup>(6)</sup>」

고 하였다. 또 拾遺記에 보이는 少昊의 傳說 가운데도

「少昊以金德 王母曰皇娥 處璇宮而夜織 或乘桴木而宵遊 經歷窮桑滄茫之浦 時有神童 容貌絕俗 稱白帝之子 即太白之精降乎際水 與皇娥譙戲 奏娛媚之樂 游漾忘歸……及皇娥生少昊 號曰窮桑氏」

라 있어 太白의 子가 童形으로 降下하여 海濱의 璇宮에서 機織하는 女人과 神婚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日本의 所謂 天孫降臨 神話에서 天孫이 浪上의 八尋殿에 機織하는 少女와 神婚하는 모습에

(6) 三品彰英「記祀神話異傳の一酌」(日鮮神話傳說の研究) pp66~67 引用

倣似하며 이는 天上의 牽牛織女傳說에서 萬葉集의 七夕和歌에서 前述한 天天河는 銀河水요 牽牛와 織女는 곧 日月精 延鳥細鳥로 보며 天原과 日本 사이를 鳥鵲橋로 건너다니는 하늘 이야기에 비유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sup>17)</sup>

한편 細鳥가 祭天을 위해 細絹을 짜서 新羅에 보냈다는 것을 보면 魏志등의 古記錄에서 韓人들이 이미 絹布를 팔 줄 알았던 것이니 細鳥가 이 織術을 日本에 처음 傳한 것이나 아닌지 疑心해 보는 바이다 祭天과 絹와의 관계는 저 首露王 神話에서 阿踰陀國의 許黃玉이 駕洛國에 이르렀을 때

「山邊設綬殿祇候 王后於山外別浦津頭 維舟登陸 憩於高橋 解所著綾袴爲贄 遺于山靈也」

라한 綾袴爲贄를 살펴볼 수 있는 바 최근 首露의 妻 阿踰陀國 公主가 바다를 건너 駕洛國에 올 때 船內에 侍從二名의 夫婦와 錦繡綾羅衣裳 疋段과 金銀珠寶瓊玖服玩器를 싣고 왔다<sup>18)</sup>는 記錄도 日本內에 그런 이들의 우리 駕洛인들이 살고 있어 貢物을 가지고 駕洛國에 온 事實을 反映하는 說話로 보는 것과 겨누어 보면 꽤 흥미로운 문제가 생긴다.

### III. 歷史的 比定

延鳥細鳥는 陽中鳥說話로 日蝕現象을 말하는 것이란 推斷은 前述한 바와 같다. 그러면 이제 이 說話를 歷史的으로 比定해본 몇 분의 論攷를 먼저 들어 檢討를 加해 보자. 李丙燾 博士는

「天日槍의 傳說是 三國遺事에 보이는 延鳥郎細鳥女の 說話를 聯想하게 하거나 단 後者는 前者와 反對로 夫 延鳥가 먼저 日本에 건너가 王 노릇을 하고 다음에 妻 細鳥가 渡海하였다 한다. 延鳥 細鳥가 日本으로 건너간 후에는 新羅의 日月이 빛을 잃었다는 說話와 天日槍이란 이름과의 사이에 어떤 關聯性이 있는지 이것도 생각할 문제다<sup>19)</sup>」

라고 하여 아마노 히보코(天日槍) 說話와의 關係를 暗示하였고, 李弘植 教授는

「辰韓地方에서 東海를 건너서 日本의 一部地方의 支配者가 된 說話는 우리나라 古典에도 남아 있다. 즉 三國遺事 紀異篇에 나타나고 있는 延鳥郎 細鳥

(7) 佐佐木信綱「萬葉集上」(東京岩波文庫) pp.393~400 參考

(8) 三國遺事 卷二「駕洛國記」參考

(9) 李丙燾「三韓의 社會相」(韓國史古代篇) 引用

女の 說話가 그것이다. 이 傳説은 매우 재미있는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太古時代에 정말 있을 수 있는 歷史를 反映한 傳説로 볼 것이며 延烏郎이야 말로 日本傳説의 스사노오노미고도(素戔鳴尊)같은 存在가 될 수 있는 것이다<sup>(10)</sup>」라고 하였다. 또 丁仲煥氏는

「日本書紀 第二分註의 說話와 同書 天日槍의 說話와 三國遺事 延烏郎 細烏女の 說話는 그 根源에 있어서 서로 共通點을 가졌다」

고 하고 다시

「三國遺事に 보이는 延烏郎 細烏女の 說話와 비슷한 新羅關係 說話가 日本書紀에 있다. 즉 아메노히코고(天日槍) 說話가 그것이다<sup>(11)</sup>」

라고 하였으며 張德順氏는

「이 日月이 日本에 건너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日本의 太陽의 女神인 天照大神과 어떤 關聯性이 있거나 않은가고 推測이 되나 이는 더 考究해 보아야 할 課題이다.」

라고 말하고

「延烏郎과 天日槍의 說話는 각각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다 결국은 하나의 太陽의 女神說話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推測은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日本의 太陽의 女神인 天照大神에까지 이팔려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古代의 日本民族은 大陸에서 韓半島를 거쳐 섬나라인 日本으로 移動한 民族에 의해 形成되었다는 歷史的 常識을 생각할 때 太陽神의 日本 移動의 神話的可能性도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니다.<sup>(12)</sup>」

라고 하여 天日槍說話에서 天照大神에까지 溯及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日本人 學者들의 몇 論攷를 옮겨 보면 金澤氏는

「延烏細烏의 記事는 上古 以來 新羅人이 日本에 移住한 것을 말하는 傳説의 하나<sup>(13)</sup>」

라고 하여 前述한 說話의 漠然한 推斷을 하고 있는 데 대하여 津田氏는 「延烏郎 細烏女는 迎日縣의 地名說話로 '日'이란 것으로 보면 日本에도 附會된 것이다. 迎日縣의 이름이 高麗朝에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면 이 이야기의 만들어진 時代를 알 수 있다. 天日槍의 이야기와 조금 닮은 점이 있으나 全體的인 構成으로 보아 支那思想에서 온 것으로 勿論 天日槍說話와는 何等의 因緣도 없다<sup>(14)</sup>」

(10) 李弘植「어명기의 한일관계와 건설의 검토」(國史上의 諸問題 二輯) pp.32~34 引用

(11) 丁仲煥「加羅史抄」(釜大 韓日文化研究所) 第七章 任那說話 pp.133~139引用

(12) 張德順「古典文學에 나타난 對日感情」(東亞文化 四輯) pp.36~41 引用

(13) 金澤庄三郎「日鮮同祖論」 p.44 譯文

(14) 津田左右吉「古事記及 日本書紀の研究」 pp. 譯文

고 하여 前者의 論述을 否認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問題로 惹起된 스사노오노미고도(須佐之男命)와 아메노히보코(天日槍)의 說話를 檢討해 보자. 前者는 日本書紀의 第四書와 第五書가 그 根據가 된다고 보겠다.

「一書曰 素戔鳴尊 所行無狀 故諸神科以千座置戶 而逐逐之 是時 素戔鳴尊 帥其子五十猛神 降到新羅國 居曾尸茂梨之處 乃興言曰 此地吾不欲居 遂以植土作舟 乘之東渡 到出雲國簸川上所在 鳥上之峯<sup>(15)</sup>」

素戔鳴尊이 高天原에 올라가서 亂行을 하여 女神 天照大神에게 追放당하였을 때 그의 아들인 이다케무노가미(五十猛神)를 데리고 新羅의 소시모리(曾尸茂梨)에 갔다가 거기서 배로 이즈모(出雲)에 건너 갔다고 한 것이 第四書의 記錄이고

「一書曰 素戔鳴尊曰 韓鄉之嶋 是有金銀 若使吾兒所御之國 不有浮寶者 未是佳也 乃拔鬚髯散之 即成杉 又拔散胸毛 是成檜 尻毛是成椈 眉毛是成檣樟 已而定其當用 乃稱之曰 杉及檣樟此兩樹者 可以爲浮寶 檜可以爲瑞宮之材 椈可以爲顯見若生奧津乘 戶將臥之具 夫須瞰八十木種 皆能播生 于時素戔鳴尊之子號曰五十猛命 妹大屋津姬命 次椈津姬命 凡此三神 亦能分布木種 即奉渡於紀伊國也 然後素戔鳴尊居熊成峯而 遂入於根國者矣<sup>(16)</sup>」

의, 素戔鳴尊이 가라구니(韓鄉)의 섬은 훔쳐하여 네 아들이 다스릴 나라나 배가 있으면 좋지 못하다 하여 자기몸의 털을 뽑아 여러 가지 나무를 만들어 繁殖시키고 그의 三男妹로 하여금 全國에 나무를 퍼뜨리게 하고 紀伊國(和歌山縣)에 건너갔다. 그뒤 그는 구마나리노다케(熊成峯)에 있다가 뿌리나라(根國)에 들어갔다<sup>(17)</sup>는 第五書의 記錄은 이즈모(出雲)의 祖神 素戔鳴尊이 曾尸茂梨에 降臨하였다는 것과, 熊成峯에 있다가 故鄉인 根國(韓國)에 들어갔다는 說話에서 出雲의 勢力이 우리 나라에서 東海를 건너간 新羅民의 殖民地였으리라는 一見解는 이미 우리 나라 史家들의 通論으로 確實視되는 것인즉 이렇게 보면 延鳥郎도 素戔鳴尊으로까지 보아지기도 한다. 日本의 貴重한 古典으로 認定되는 이즈모풍토기(出雲風土記)의 구니비기(國引)傳說<sup>(18)</sup>

(15) 「日本書紀」卷一 神代紀上 第四ノ一書 引用文

(16) 「日本書紀」卷一 神代紀上 第五ノ一書 引用文

(17) 李弘植「어머기의 한일관계와 전설의 검토」(前掲書) pp.26~27의 要約 參考

(18) 「出雲風土記」에 다음과 같은 것이 적혀 있다.

「意宇郡 所以號意宇者 國引坐 八東水臣津野命詔 八竝立出雲國者 狹布之稚國在哉 初國小所作 故將作羅紹而 栲衾志羅紀乃三埼矣 國之餘餘有耶見者 國之餘有詔而 童女曾錮所取而 大魚之支太衡別而 波多須須支羅振別而 三目之綱打挂而 霜黑屬聞耶耶爾 河船之毛骨曾呂爾 國國來來引來 羅國者 自去豆乃打絕而 八糴米支豆支乃御埜也 此而竝立加志者 石見國與出雲國之界 有名佐比賀山是也 亦持引綱者 國之長濱是也」

가운데 新羅의 海串의 남은 부분을 동아줄로 끌어 당겨 이즈모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辰韓地方에서 간 사람들이 이즈모에 植民하고 支配한 한 痕跡으로 보겠고, 또 渡海의 方法도 延鳥郎의 「忽有一魚(鰲)負歸日本云云)은 出雲傳說의 「이나바(因幡)의 토끼와 와니」의 그것과 흡사하여 흥미있는 對照가 된다.

다음으로 天日槍의 說話를 檢討해 보자. 이 說話는 古事記와 日本書紀가 다르다. 日本書紀를 먼저 살펴보면

「三年春三月 新羅王子 天日槍來歸焉 將來物 羽太玉一箇 足高玉一箇 鶉鹿鹿赤石玉一箇 出石小刀一口 出石棒一枝 日鏡一面 熊神籬一具 并七物 則藏于但馬 常爲神物也……一云 初天日槍 乘艇泊于播磨國 在於完栗邑時 天皇遣三輪君祖大友主 與倭直祖 長尾市於播磨 而問天日槍曰 汝也誰人 且何國人也 天日槍對曰 僕新羅國主之子也. 然聞日本國有聖皇 則以己國授弟知古而化歸之 仍貢獻物 葉細珠 足高珠 鶉鹿鹿赤石珠 出石刀子 出石槍 日鏡 熊神籬 膽狹淺大刀 并八物 仍詔天日槍曰 播磨國完栗邑 淡路島出淺邑 是二邑 汝任意居之 時天日槍啓之曰 臣將住處 若垂天恩 聽臣情願地者 臣親歷視諸國 則合于臣心欲被給 乃聽之 於是天日槍自菟道河沂之 北入近江國吾各邑而暫往 復更自近江 經若狹國西到但馬國則定住處也 是以近江國鏡 谷陶人 則天日槍之從人也 故天日槍娶但馬出石人 太耳女 麻多烏生但馬諸助也<sup>(19)</sup>」

라고 있다.

그런데 같은 天日槍이 古事記, 應神紀에는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又昔有新羅國主之子 名謂天之日矛 是人參渡來也 所以參渡來者 新羅國有一沼 名謂阿具奴摩 此沼之邊 一賤女晝寢 於是日耀如虹指其陰上 亦有一賤夫 思異其狀 恒伺其女人之行 故是女人 自其晝寢時 姪身 生赤玉 爾其所伺賤夫 乞取其玉 恒裹着腰 此人營田於山谷之間 故 耕人等之飲食 負一牛而 入山谷之中 遇逢其國主之子 天之日矛 爾問其人曰 何汝飲食 負牛入山谷 汝必殺食是牛 即捕其人 將入獄囚 其人答曰 吾非殺牛 唯送田人之食耳 然猶不赦爾 解其腰之玉 幣其國主之子 故赦其賤夫 將來其玉 置於床邊 即化美麗嬪子 仍婚爲嫡妻 爾其嬪子 常設種種之珍味 恒食其夫 故其國主之子 心審賢妻 其女人言 凡吾者 非應爲汝妻之女 將行吾祖之國 即竊乘小船 逃遁渡來 留于難波 於是 天之日矛聞其妻遁 乃追渡來 將到難波之間 其渡之神塞以不入 故更還 泊多遲摩國 即留其國而 娶多遲摩之侯尾之女 名前律見 生子多遲摩母呂須玖<sup>(20)</sup>」

(19) 「日本書紀」卷六 垂仁天皇 三年三月條 引用

(20) 「古事記」中卷 垂仁天皇 三年甲午三月條 引用

그런데 古事記의 이 內容은 日本書紀 第二分註에는 주누가아라시도(都怒我阿羅斯等)의 說話로 되어 있다.

「二年是歲 任那人蘇那曷叱智請之 欲歸于國 蓋先皇之世來朝未濕歟 故敦賞蘇那曷叱智 仍賫赤絹一百疋 賜任那王 然新羅人遮之於道而奪焉 其二國之怨始起於是時也·初都怒我阿羅斯等 有國之時 黃牛負田器 將往田舍 黃牛忽失 則尋迹覓之 跡留一郡家中 時有一老夫曰 汝所求牛者 入此郡家中 然郡公等曰 由牛所負物而推之 必設殺食 若其主覓至 則以物償耳 即殺食也 若問牛直欲得何物 莫望財物 便欲得郡內祭神云爾 俄而郡公等到之曰 牛直欲得何物 對如老父之教 其所祭神 是白石也 以白石授牛主 因以將來置于寢中 其神石化美麗童女 於是阿羅斯等大歡之欲合 然阿羅斯等去他處之間 童女忽失也 阿羅斯等大驚之 問己婦曰 童女何處去矣 對曰 向東方 則尋追求 遠遠浮海以入日本國 所求童女者 詣于難波 爲比賣語曾社神 且至豐國前郡 復爲比賣語曾社神 並二處見祭焉」<sup>(21)</sup>

日本書紀 垂仁紀 三年條의 天日槍說話는 古事記 應神紀의 天之日矛說話에 比하여 極 單純하다. 延鳥郎細鳥女와 比較해보면 後者が 더욱 가깝다. 前者는 單純한 新羅王子의 日本歸化와 異族婚을 말한 傳에 대하여 後者는 도망간 아내를 따라 天日槍이 渡日한 것으로 되어 遺事說話의 먼저 간 남편을 따라 아내가 뒤쫓아 간 사실과 比較가 된다. 그런데 後者는 女人이 日光에 비취 낳은 赤玉의 變化로 太陽과 관련을 가진 것으로 우리 說話의 夫婦가 日月의 精이었다는 것과 비슷한데, 後漢 王充의 論衡 吉驗篇의

「北夷窈窕國王侍婢有娠 王欲殺之 婢對曰 有氣大如雞子 從天而下 我故有娠 後產子 名東明」

이나 遺事의

「金蛙異之 幽閉於室中 爲日光所照 引身避之 日影又 逐而照之 因而有孕 生一卵……有一兒破殼而出爲朱蒙」

의 朱蒙誕生說話에서 보는 北方의 說話가 半島를 거쳐 日本의 三神(天照大神·素戔嗚尊·月讀尊) 중 女日神 天照大神에까지 옮겨가는 중 變化敷衍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보도 결코 無爲는 아닐 것이다.<sup>(22)</sup> 그런데 日本書紀 二年條의 說話는 古事記의 內容과 大同小異하여 女人을 따라 日本으로 건너가나 다음 몇 곳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첫째 古事記(前者)는 소를 끌고 음식을 나르는 賤夫가 赤玉을 갖고 감옥에 들지 않으려고 天之日矛에 바치는데 대해 日本書紀(後者)는 소를 끌고 가다

(21) 「日本書紀」卷六 垂仁天皇 二年 癸巳條 引用

(22) 張德順 前掲書「延鳥細鳥說話」參考

태양진 소의 代價로 白石을 얻는다. 둘째 前者는 소를 끄는 자가 소를 죽이  
 더한다고 의심받으나 後者는 소를 끄는 자가 소를 당에게 태우게 먹혀버  
 린다. 셋째 前者는 赤玉의 化한 少女가 王子의 妻가 되어 구중을 듣고 달아  
 났다고 하였으나 後者는 白石이 化한 女人이 都怒我阿羅斯等과 결혼하기 앞  
 서 逃亡한다. 넷째 前者는 王子가 追來하면서 難波에 들어가려다 渡神에게  
 沮止당하나 後者는 그런 것이 없다. 다섯째 前者는 阿加流比賣란 神이라  
 하였으나 後者는 그 이름이 없다. 여섯째 前者는 比賣語曾社神은 難波에서  
 豊國에 옮겨진 것으로 말하고 따라오는 사람에게 잡혀 다시 달아난 것으로  
 된 것처럼 보이나 後者는 그런 점이 없다. 일곱째 前者는 天之日矛가 多遲  
 摩國에 土着하였으나 後者는 즈누가아라시도가 결국 本土에 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다. 여덟째 前者는 赤網爭奪로 窓富加羅와 新羅가 敵對視되나 後者  
 는 그런 것이 없다<sup>(23)</sup>]

는 점을 들 수 있으나 그중 다만 赤玉이 白石의 變化로, 日光說話만이  
 빠져 있고 天日槍 또는 天之日矛가 주누가아라시도(都怒我阿羅斯等)  
 로 되어 있는데 이는 우시기아라시지간기(宇斯岐阿利叱智干岐)라고도  
 하고, 加羅의 王子 소나가시지(蘇那曷叱智)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加羅  
 地方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되며 지금까지 論議되어온 新羅와의 관  
 계를 不確實하게 해준다. 이와같이 같은 이야기의 서로 判異한 두 사  
 람의 說話로 되어있는 것은 아메노히모고가 주누가아라시도에 傳訛되  
 어 전해졌다고 하기보다는 本來는 이 說話가 前者에도 後者에도 관  
 계없는 獨立된 것이었던 것을 혹은 前者에 結合하고 혹은 後者에 附  
 會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合理的인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  
 史家들의 共通의인 見解는 가령 고고학상으로 土器나 青銅器文化  
 의 東傳事實이 實證되고 墓制에서 우리 南部地方과 日本을 잇는 甕棺  
 葬의 埋葬風俗, 前述한 우리의 日月神話와 日本九州地方神話의 同質  
 性 등을 들어 여러 科學的 考證의 뒷받침을 바탕으로 民族移動이 大  
 陸에서 半島로 우리나라에서 섬나라 日本으로 진 세월에 걸쳐 行해  
 졌었다는 事實을 두고 볼 때, 日本의 이즈모(出雲) 地方은 古代 三韓  
 이나 신라의 植民地 또는 分國으로, 大和系統을 加羅의 植民地로, 新  
 羅王子 天日槍과 任那王子 蘇那曷叱智도 韓日間을 오간 抽象的 人物  
 로 보아 大過 없을 것이다. 遺事의 「按日本帝記 前後無新羅人爲王者 此  
 乃邊邑小王而非眞王也」란 註文中에서 보는, 延島郎이 邊邑의 小王이며 眞

(23) 松本重彦「太古に於ける 韓土關係の 傳説」參考

왕이 아닐 것이라는 記錄도, 韓日間의 初期의 神話속에 숨겨져 있는 本然의 모습 속에는 아마도 韓地에서 건너간 有力한 勢力이 있어 그들을 統治하였을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前章에서 論述한 陽中烏說話에 것은 日蝕現象이 이 說話의 本質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民族과 說話移動의 물결을 타고 古代說話傳承의 根源地였던 우리나라 東南部 海岸地方과 日本地方에 來往된 어느 누구의 이야기라고 特定지 을 수 없는 歷史上의 한 象徵인 사실이 덧붙어 이루어진 것이 이 延鳥細鳥가 아닐까. 처음에는 單純하던 說話가 時間의 흐름을 따라 辭說이 덧붙고 空間인 變遷에 따라 採錄者의 主觀이 덧붙어 複雜化하는 事例를 생각할 때 ‘이것은 이것이다’라는 斷定的 比定은 不可能할 것이다.

#### IV. 地理的 考察

다음으로 說話 傳承의 方法을 살펴보자.

「一日延鳥歸海採藻 忽有一巖(一云一魚) 負歸日本 見夫脫鞋 亦上其巖 巖亦負歸如前」

에서 延鳥가 마름볼 따다가 바위 또는 고기에 질려 바다를 건넜다고 하고 細鳥도 같은 바위에 질려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가장 原始的인 渡海術에 屬한다. 예컨대 朱蒙이 金蛙의 禍를 避하여 淹水를 건널 때

「王之諸子與諸臣將謀害之 蒙母知之 告曰 國人將害汝 以汝才略 何往不可 宜速圖之 於是蒙與烏伊等三人爲友 行至淹水 告水曰 我是天帝子 河伯孫 今日逃遁 追者垂及 奈何 於是魚鼈成橋 得渡而橋 追騎不得渡 至卒本州……<sup>(24)</sup>」

하였다는 데서 보는 魚鼈成橋나, 眞表律師가 遊涉하여 阿瑟羅州에 이르렀을 때 島嶼間的 魚鼈이 다리를 놓고 水中으로 맞아들어 受戒하였다는

「風化既周 遊涉到阿瑟羅州 島嶼間魚鼈成橋 迎入水中 講法受戒 既天寶十一載壬辰二月望日也……<sup>(25)</sup>」

의 魚鼈成橋나 眞表僧이 俗離山洞裏에 가서 吉祥草가 난 것을 포하고 溟州海邊을 向한지

「有魚鼈龜黿等類 出海向師前 綴身如陸 師踏而入海 唱念戒法還出……<sup>(26)</sup>」

(24) 「三國遺事」卷第一 高句麗條 引用

(25) 「三國遺事」卷第四 眞表傳簡條 引用

(26) 「三國遺事」卷第四 關東楓岳鉢淵蔽石記條 引用

하였다는 魚鼈의 綴身如陸의 渡海法은 바로 延鳥細鳥의 渡海法과 비슷하다. 이것은 日本의 出雲 隱岐島에 살던 兎(宇佐木) 群이 海和瀬들을 불러 浮出成橋하게 하고 踏橋하여 出雲으로 건너갔다는 傳說을 들어 延鳥細鳥가 魚(巖)를 타고 日本으로 건너간 데다 比較해 보기도 하였다<sup>(27)</sup>. 어쨌든 이 魚鼈成橋는 三國史記 列傳 第一 金庾臣條에 보이는, 金春秋가 高句麗에 拉致되었을 때 靑布三百步를 賂物로 주고 高句麗의 先道解에게서 언어들은 脫身之計 「龜兎之說」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延鳥郎의 이야기에서 보는 바위나 고기가 실고 갔다는 것은 古代에 出雲으로 가는 海上의 隱岐 宇佐나 筑紫를 거쳐가는 對馬 一支등의 섬이 마치 天然의 浮橋처럼 또는 移動用 岩石을 타고 건너간 것을 말한다든 見解도 있으나 역시 배(舟)였을 것으로 앞서든 「浮寶」 「槓刺舟」 「槓舟」 「獨木舟」 등 모두가 櫓羅로 짓는 통배 비슷한 것일 것 같다. 이 延鳥郎說話의 가장 오랜 研究者 가운데 한분인 金昌鈞氏의 論攷를 參考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有史以前爾來 造船術은 幼稚하였으나 如何間 簡單한 小船일망정 能히 日本 海 혹은 朝鮮海峽을 건너 朝鮮과 日本 本州 또는 九州와 交通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正確한 記錄이 없으므로 仔細한 內容은 알 수 없으나 當時의 交通貿易이 口傳의 形式으로 傳播되어 時日의 經過를 따라 神話 혹은 傳說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地方의 環境으로 말미암아 생긴 傳說을 생각하여 보면 深山幽谷에는 猛獸에 관한 傳說이 많고 海邊에는 漁夫나 혹은 難破船 등의 傳說이 흔하다. 迎日灣 附近地는 新羅都邑 慶州와 가까운 탓으로 人口도 다른 地方보다 稠密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自然 難破船도 많았을 듯하다. 즉 三國遺事에 記錄이 된 것은 作者 僧一然이 이 難破船事件의 하나를 記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一般이 周知하는 바와 같이 迎日灣 附近의 日本 海에는 島嶼이라고는 그림자도 없다. 따라서 難破한 船人 漁夫는 도저히 生命을 保全하여 돌아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海上에서 혹시 大風을 만나는 境遇엔 船人은 그만 絕望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혹시 어떻게 하여 萬幸으로 日本海邊 혹은 日本의 어느 島嶼에 漂着한 後 거기서 많은 厚待를 받은 後 本國으로 돌아온 境遇가 있었는지도 모를 것이다. 따라서 집에 있는 妻子들이 或時나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한 줄기 希望으로 ‘언제야 오니’ 하고 苦待할 것은 明白한 사실이며 또 多幸히 身數가 좋아서 돌아 온다면 ‘이제 오니’ 하고 매우 반겨 맞을 것이다. 이런 사실이 傳說이 되며 배가 바위가 되고 日本서

(27) 朴時仁「갈타이系 始祖神話 延鳥郎細鳥女」(藝術論文集第五輯) p.136 參考

厚待받은 것이 그 地方의 王이 되었다고까지 擴大된 것이 아닐까 한다.<sup>(28)</sup>』  
고 하였다. 그는 또

「東國輿地勝覽 卷二十三 迎日縣 建置沿革條에 本新羅斤烏支縣(一作烏良友)이라 한 것으로서, 新羅時代에는 이 地方을 '근오지' 혹은 '오냥우'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으며 破船한 사람 중에 살아온 사람은 延烏 한 사람밖에 살아온 사람이 없다는 說이 成立된다. 延烏郎·細烏女·斤烏支·烏良友 등은 '오나·오나·오나'의 뜻을 表現한 吏讀式 漢文이며 '延'은 '맞을' (迎)의 意며 '烏郎'은 '오나'의 意인데 後世의 言語變遷과 純朝鮮語 發音을 漢字로 正確히 表現하기 困難하였던 關係로 距離가 있어 보인다. 現今 濟州島 方言에 흔히 '오람수다'(하교저 오시오)가 있는 것과 같이 '오라' '오나'는 '오람' '오냥'도 되며 다시 으으로 변하여 '오랑' '오냥'이라고도 된다. '오나우'는 '오나'와 같아서 '오나'가 烏郎女로 되었으며 延이나 細는 지금말에 '石橋돌다리' '垂陽버드나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語意를 強케 한 것에 不過하다.<sup>(29)</sup>」

고 하여 難破船의 生存者로 日本서 厚待를 받고 돌아온 사람의 境遇로 吏讀式 풀이를 하였으나 附會한 감이 적지 않다.

그런데 小船의 경우 古代의 航海에서는 風向과 潮流가 絕對的인 影響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東海의 北쪽에서 南下하는 리만 寒流를 타고 漂流하는 때도 對馬島 近海에 이르면 南쪽에서 北上하는 구로스오(黑潮)支流(暖流)를 건너 타고 고리같이 돌아 日本의 山陰, 고대의 이즈모, 지금의 鳥根縣地方의 海岸에 닿는 慶尙道 海岸과의 連結을 注目할 수 있고, 또 風向도 冬期에는 우리나라에서 日本을 向한 西北風이 불고 夏期에는 反對로 日本에서 우리나라를 向한 東南風이 부는 이른바 季節風의 風向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면 延烏細烏가 新羅 東海邊에서 日本의 어느 地方에 移住하였을까를 생각하여 봄도 無益한 일은 아닐 것 같다. 여기 대하여서는 日本人 中田氏가 꽤 興味있는 考證을 하고 있다. 그는 出航과 寄港地를 各各 迎日灣과 隱岐國으로 보았다.

「迎日灣과 隱岐道前知夫島와는 함께 北緯 約三十六度, 同灣의 南粟浦(蔚山東北)는 約 三十五度半의 線上에 있어 灣과 島와의 距離는 約二百里이므로 迎日灣(浦項) 또는 粟浦(甘浦)에서 東으로 向하면 對馬暖流를 타고 一路 容易하게 隱岐知夫島에 到着할 수가 있다.<sup>(30)</sup>」

고 하고 있다. 遺事의 「祭天所名迎日縣 又都祈野」의 迎日縣名은 高麗時

(28) 金昌鈞「延烏郎 細烏女 傳說의 由來」(新興 創刊號 1929年) 引用

(29) 金昌鈞 前揭論文 引用

(30) 中田燾「延烏細烏考」前掲書 p.50 參考

대에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해 보면 이 說話의 만들어진 年代가 自明해 지는데 慶尙道 地理志의

「古之斤烏支縣新羅景德王改臨汀縣 屬義昌郡領縣 高麗時改迎日縣 屬鷄林府任內」

에서 보는 '斤烏支'는 '斤' 즉 '근'에 '都祈'의 誤稱 '都祈'와 '烏支'가 語源上 一致하고 한편 '隱岐' (隱岐) 즉 '오기'와 合致하니 이는 延島가 知夫島에 移住한 후 처음 그가 배로 떠난 舊緣의 땅 烏支(迎日灣)의 이름을 自己의 新王國에 옮긴 것인지 또는 王妃 細烏가 祭天迎日의 偉功을 세운 緣地 都祈野의 地名을 옮긴 것인지가 오기(隱岐)國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知夫里의 地名도 新羅 蔚山 西方에 있는 彦陽縣을 三國史記 地理志에는 本知火(지불)이라 하고 慶尙道 地理志에는 '古之居智火縣'이라 하였으니 隱岐의 知夫里가 新羅의 知火里와 一致하는 것은 延島 細烏의 緣故地를 延島가 渡海하여 到着 第一步를 더딘 隱岐港에 그 地名을 옮겼을 것이라고 보았다.<sup>(31)</sup> 그리고 日蝕祭天의 땅이 都(都)祈野의 日月池上이었던 것은 東國輿地勝覽 卷二三 迎日縣古跡條에

「日月池 立縣東十里都(都)祈野 新羅阿達羅王時云云 而祭之於池上 日月復光 ……因名其池曰日月池 縣名曰迎日 今按高麗改臨汀爲迎日 則非始終新羅阿達羅王時矣 迎爲之說 不見於金富軾 三國史記 權近東國史略 而獨於遺事載之 無足取信」

이라고 한 記錄에서 보이며 迎島說話를 믿을 수 없다는 部分은 多分히 그 環境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일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延島細烏의 實名에 대하여서도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根據는 전혀없고 다만 延(迎)烏는 양오(陽烏)로 細烏는 쇠오(金烏)를 담은 陽中烏의 象徴的 名稱으로 推測을 하고<sup>(32)</sup> 某鮮日同一論者는 迎日이라는 地名은 太古에 日本人이 朝鮮에 왔다가 돌아갈 때에는 每日 太陽을 맞게 되는 고로 迎日이라고 命名하였다고 하나 前述한 바와 같이 原來 迎日 地方의 地名은 新羅時代에는 斤烏支 혹은 烏良友라 하였던 것을 高麗時代에 迎日이라고 改名한 만큼, 新羅 阿達羅王時代에 迎日이라는 地名이 있었다고는 믿을 수 없고 아마도 이 說話는 오랜 세월을 지나는

(31) 金澤庄三郎「日鮮同祖論」p.91 譯文(外來의 種族도 歸化와 동시에 그 本土의 地名을 使用하는 것이 普通이다. 이것은 東西 各民族의 共通的인 現象이다) 參考

(32) 中田 蕨「前掲論文」pp.39~40 參考

동안에 다른 說話가 添加되고 變化하여 記錄된 한 象徵的 이야기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또 三國遺事의 射琴匣傳說에 보이는 烏忌日故事의 烏는 扶餘에서 日本·大和까지 日王의 길을 안내한 烏와 같은 日神 日者(巫)로, 烏忌는 迎日의 烏支였으며 이는 高句麗移動 때 同行한 烏伊·烏遠, 百濟 沸流 溫祚가 同行한 烏干, 日本의 神武王이 同行한 頭八咫烏의 烏로, 이들이 섬긴 王은 모두 日神이며 여러 移住始祖와 同行하고 그 王庭에서 섬긴 烏는 陽烏·日精·日神·大陽으로, 延烏郎은 日陽의 日精이고 細烏女는 太陰玉兔라 한 記錄도 있다<sup>(33)</sup> 특히 夫婦가 운데서 細烏가 離國하자 곧 日月이 無光하였다는 것은 결국 女人과 빛을 관련지은 것으로 우리 日月神話의 太陽과 女人의 關聯性으로 보나 古事記·天日槍의 日光에 感生된 赤玉의 女人化, 天照大神인 太陽의 女神등을 관련시켜 앞서 든 民族移動의 狀況과 함께 생각하여 볼 때 科學的인 結論에 到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 5. 結 語

以上에서 滿足스럽지는 않으나 本稿에서 意圖하던 바 延烏細烏의 本質에는 어느 程度 接近시키려고 努力해 본 셈이다. 대체로 이 說話는 陽中烏說話와 日蝕現象을 관련시켜 본 것이 그 첫번째요 우리나라의 古代史와 日本의 古代史를 連結해 본 史的인 比定이 그 둘째였으며 說話의 移動性을 重要視하여 地理的인 또는 地名의 語學的인 考證의 一部를 整理해 본 것이 그 마지막이다. 특히 最近에 와서 많이 論議되고 있는 日本의 山陰(島根)地方을 중심으로 古代 우리 民族 즉 辰韓이나 新羅등의 勢力이 移住하여 그 分國의 형태로 살고 있었으리라는 歷史的 考證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인 것이 이 說話의 性質을 증진의 것과 달리 볼 수 있는 큰 差異點이다. 알타이 移動民族 原始文化의 상징적 日月신화 즉 延烏細烏의 근원은 우리 民族이 日本領에 開拓하였던 古代 우리의 植民地 乃至 小分國에 옮겨 가 統治者가 되고 또 來往한 사실을 中國의 古代 陽中烏 日蝕의 東漸說話에 붙여 歷史的 移動現象을 보인 보기일 것이다. 後半에 言及한 地名의 考證的 論述은 거의 科學的인 밑받침을 가진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렇게 되면 日本

(33) 朴時仁 前掲書 pp. 132~136

書紀나 古事記 동족의 全面的 再檢討가 不可避해져 이 方面의 充分한 研究없이 내려진 하나의 結論에 自責이 앞서나 다만 序言에서 밝힌 바와같이 우리 文學史가 이 說話를 言及하면서 거의 無批判的이고 심지어는 日月精의 日本逃避내지 新羅人의 日本歸化 같은 印象을 주어 왔으므로 本論이 여기에서 벗어나는 理論에 다스나마 도움을 줬다면 벽多幸스런 일이요 所得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다만 새로운 理論이 아니라 說話에 導入시킨 여러 史家들의 見解를 빌어 올바른 說話의 意味를 찾자는데 目的을 두었고 그러노라고 자연 整理的인 印象을 주었으며 짧은 紙面에서 성급한 結論이 내려진 듯한 느낌이 없지 않으나 줄이고 後日의 再考를 約束한다.